

“공부하다 죽겠다” 첫 ‘노천안거’ 결사

자승 스님 등 9명 스님들 천막 동안거 정진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이번 겨울 ‘노천 천막’ 안거 정진에 들어간다. 극한의 수행으로 출가수행자의 결연한 정진의지를 보이고, 이를 통해 불교 중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단 지도자급 스님들이 직접 노천에서 안거 정진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노천 천막 안거에는 자승 스님과 수좌 정목·무연(동광)·성곡·중앙총회의원 진각·호산·심우·도림·양평상원사 前 주지 재현 스님이 참여한다. 스님들은 오는 11월 11일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 내년 2월 8일까지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 부지에 천막을 치고 수행정진한다.

천막 수행처 이름은 ‘상월선원(霜月禪院)’이라 정했다. ‘서리와 달을 벗 삼아 정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선원 소임도 최근 정리됐다. 선덕은 수좌 정목 스님, 선원장은 무연 스님, 입승은 진각 스님, 지객은 호산 스님이 맡았으며, 외호 대중으로는 서울 봉은사 주지 월평 스님과 성남 불국사 주지 혜일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수행 정진의 결연한 의지는 스님들이 정한 청구에서 엿볼 수 있다.

천막 법당을 설치해 9명이 생활하고 매일 기본 14시간 좌선과 행선을 하기로 했다. 안거 해제까지 삭발과 목욕은 금지며, 옷은 1벌만 허용된다. 식사는 하루 한 끼만 사시 때 외부서 제공받기로 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외부인과의 접촉은 일체 금지며, 천막 법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원의 청구가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청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해제 전 법당을 떠날 경우 조계종 승적에서 제적하겠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천 천막 동안거 정진’은 지난 2월 백담사에서 무문관 수행을 마친 자승 스님의 “안거 한철만이라고 치열하게 정진해보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

취지에 공감한 스님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9명으로 정리됐다.

지객 소임을 맡은 호산 스님은 “참여 의사를 보내온 스님들이 많았다. 이판과 사관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총회의원과 제방 선원 수좌 스님들이 고루 방부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천막 선원의 장소는 종로 원각사지가 거론됐지만, 문화재여서 천막 설치 어렵고 출입이 제한돼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로 결정됐다.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는 조계종이 지난 2014년 신도시 포교를 위해 매입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포교당 건립불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호산 스님은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에서 이뤄지는 스님들의 용맹정진

위례신도시 포교당 부지서

3개월 천막 기거하며 수행

삭발·목욕금지, 옷1벌 허용

‘떠나면 제적’ 의지 결연해

“평생에 다시는 없을 기회

불교인식 개선에 도움되길”

으로 신도시 포교를 위한 중단의 불사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최고의 도량을 건립하길 기원하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천 안거 결사에 참여하는 스님들은 안거기간 용맹정진을 다짐했다. 입승 소임을 맡은 진각 스님은 “‘공부하다 죽겠다’면서 ‘혹독한 환경 속에 나 자신을 던져 극한의 수행을 해보려고 한다. 이 같은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치열하게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호산 스님 역시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행정 소임을 맡으면서 선원의 정진이 그리웠다”고 용맹정진을 다짐했다. 이어 “스님들의 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교교리 ‘TOP’은 바로 ‘나’란다

이 문제 정답인 ‘타’를 쓰고 환호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A5면>

불교 꿈나무들을 위한 화합의 장인 제11회 나란다축제가 9월 21일 동국대 팔정도 광장을 비롯한 일대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불교교리 경시대회와 전통문화체험을 비롯해 외국인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 참여한 초등학생들

글·사진=노덕현 기자 nodoc@hyunbul.com

신임 원로의원 선출 회의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 10월 10일… 자광 스님 선출 안건 다뤄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자광 스님의 선출 여부를 다룰 원로회의가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0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2차 회의를 열

고, 중앙총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새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前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의 선출 여부를 결정한다. 원로 의원은 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조계사에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현재 원로회의는 신홍사·화엄사·관음사·선운사 원로의원이 공식인 상태다. 또한 동화사가 성우 스님과 지성 스님으로 2명의 원로의원이 활동 중이며, 자광 스님이 원로의원으로 선출되면 정연 스님과 함께 직할교구도 2명의 원로를 확보하게 된다.

윤호성 기자

불교진흥원 신임 이사장 이한구 이사 추대

제179차 이사회서… 10월 1일부터 임기 시작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신임이사장에 이한구 진흥원·불교방송 이사(사진)가 추대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은 9월 24일 마포 다보빌딩 이사장실에서 제179차 이사회를 열고 제15대 이사장에 이한구 진흥원 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는 이한구 신임이사장 추대에 대해 “기후 재앙과 환경파괴,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파국에 직면한 인류문명에 대해 불교가 대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추대 사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1968년 서울대 문리과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철학회장, 원효학술상운영위원장,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원효학술상 심사위원장, 대한불교문화대 학장,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의대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으로 있다.

이 이사장은 은해사 기기암에서 휴암 스님과 오랫동안 참선 수행과 불교경전 공부를 해왔으며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



이 많아 고엔까지 10데이 코스를 참가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동양 문명의 정수인 불교가 인류문명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대한불교진흥원 차원의 실천 방안을 추대와 함께 밝혔다.

이 이사장이 밝힌 실천 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계 전체가 하나라는 생명사상에 기초하여, 현재의 과도한 육식습관을 절제하고 생명체의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불교의 정진세계를 고양시키기 위해 구도의 현대적 수행기풍을 새롭게 모색한다 △불교 정신 계승을 위해 인재발사에 적극 나선다 등이다.

이 이사장은 “대내외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불교가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깨달음과 실천에 이르게 하겠다”며 “종교적 사명과 불교진흥원이라는 재단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전했다.

이한구 신임이사장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노덕현 기자

2019년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개산 1374주년 — 불지중가 국지대찰

開山

천년도량 영축산의 하늘이 드높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74주년을 맞아 개산조 자장율사를 기리는 영고재와 함께 여러분들을 축제의 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2019.09.13~10.20

10. 04 | 금 북(服)고(Go) 한복 패션쇼 (오후 2시)

10. 05 | 토 영축삼보 이운, 괘불헌공, 만발공양, 제6회 청소년 창작 댄스 경연대회

10. 05~20 영축문화축제 LIGHT-UP (오후 7시)

10. 06 | 일 초청음악공연(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

10. 07 | 월 영고재, 개산대제 법요식, 부도헌다례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382-7182 전송 055)382-7196 www.tongdosa.or.kr